



해외주식펀드는 봄, 국내주식펀드는 엄동설한

1. 해외주식펀드 순유입, 국내주식은 순유출

- 해외주식 직접투자자 해외주식에 대해 관심이 커진 투자자들은 2020년 10월부터 해외주식펀드에도 투자를 늘리기 시작
- 전기차, 2차 전지, 테크놀로지 등의 분야의 펀드에 주로 투자
- 반면, 국내주식펀드(ETF포함)에서는 5.3조원 순유출

2. 은퇴자산관련 펀드, 공모주펀드, 그리고 섹터펀드

- 테마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은퇴자산과 섹터펀드, 공모주 펀드 등으로 자금 유입
-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TDF 등 은퇴자산 관련 펀드로의 자금 유입 꾸준히 이어짐
- 대형 IPO가 이어지면서, 공모주펀드로의 관심 지속

3. 연초 이후 자금 유입 상위 펀드

- 연초 이후 자금 유입 상위펀드를 살펴보면, 2차전지·전기차·IT 관련 펀드가 상위권 차지
- 원칙적으로 테마펀드처럼 특정 분야에만 투자하는 펀드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20~30% 정도를 투자하는 것을 권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20~30%의 비중을 엄격하게 따르지는 않더라도, 변동성에 대한 경각심은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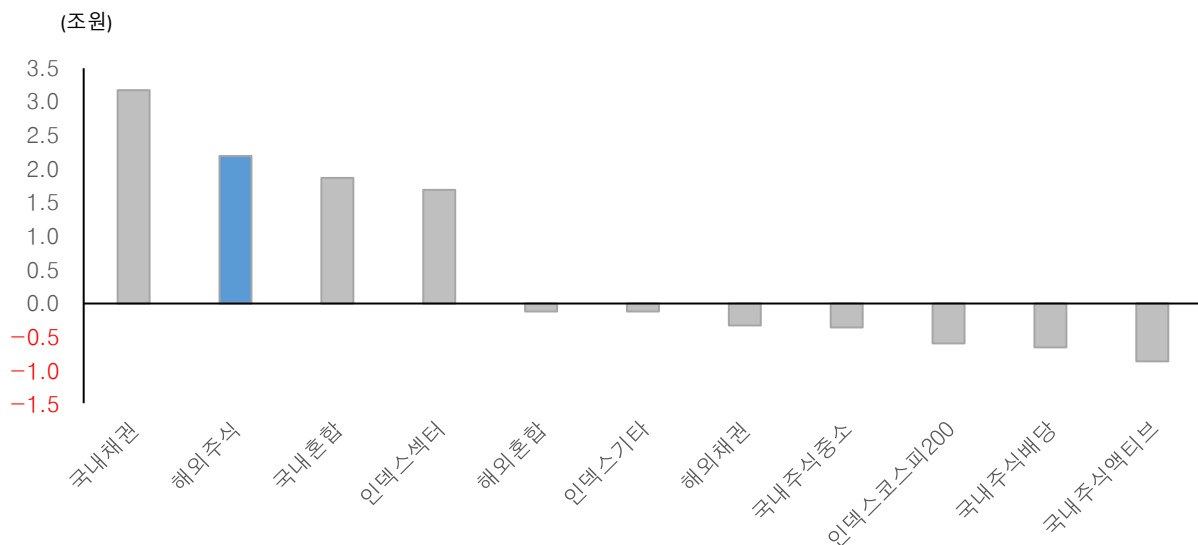
1 해외주식펀드 순유입, 국내주식펀드 순유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와 해외 주식 직접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해외주식 직접투자도 해외주식에 대해 관심이 커진 투자자들은 2020년 10월부터 해외주식펀드에도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였다.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해외주식펀드(ETF포함)으로는 4.4조원이 순유입되었다. 반면, 국내주식펀드(ETF포함)으로는 5.3조원이 순유출되었다.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언어적 제약이 있어 투자종목을 확대하기가 국내주식보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전기차, 2차 전지, 테크놀로지 등의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업종이나 분야를 정하고, 이에 투자하는 해외주식펀드를 선택한 것이다.

국내주식펀드 중에서도 인덱스 섹터 펀드에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주로 자금이 들어오는 펀드는 2차전지, IT, 자동차 등이며, 해외주식펀드와 비슷한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와 달리 투자자들은 장기 성장성이 확실하게 기대될 수 있는 분야에만 투자하려 한다.

[차트1] 연초이후 국내펀드 중에서 국내채권, 해외주식펀드로는 자금 유입



자료:FnSpectrum,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월 2일 영업일 기준

2. 은퇴자산관련 펀드, 공모주펀드, 그리고 섹터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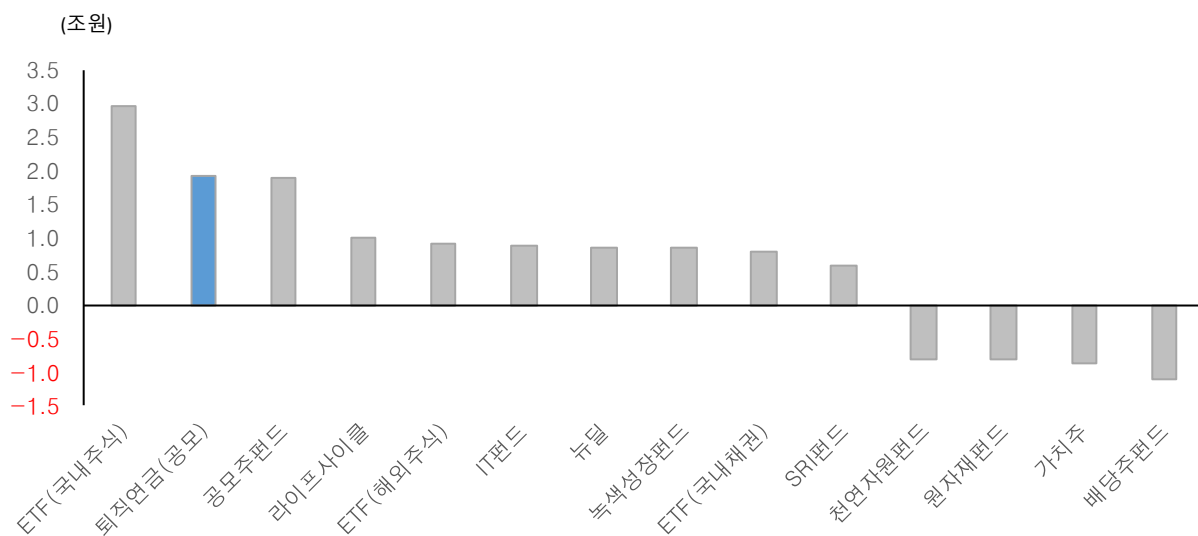
연초 이후 테마별(테마에 해당되는 펀드는 주식·혼합·채권 등 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포함됨, 테마별 분류는 유형별로 펀드 중복될 수 있음) 자금 유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은퇴자산과 섹터펀드, 공모주 펀드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었다.

국내주식ETF 펀드 중에서는 KOSPI 200인버스펀드, 2차전지, 삼성그룹주펀드, 수소경제, ESG 관련 펀드로 자금 유입이 많이 되었다. 예전과 비교하여 특정 섹터나 범위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선호가 강해졌다.

노령화로 인해 은퇴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은퇴자산 관련 펀드로는 자금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라이프사이클펀드(TDF 포함)는 순자산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섰으며, 연초 이후로도 1.2조원이 순유입되었다. 라이프사이클 펀드로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투자 금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에도 대형IPO가 이어지면서, 공모주펀드에 대한 관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연초 이후 공모주펀드로는 1.9조원이 들어왔다.

[차트2] 연초 이후 은퇴자산 관련 펀드, 공모주펀드, 섹터펀드로 자금 유입



자료:FnSpectrum,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월 2일 영업일 기준

3. 연초 이후 자금유입 상위펀드

연초 이후 자금 유입 상위펀드를 살펴보면, 2차전지·전기차·IT 관련 펀드가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2차전지·전기차 관련 펀드는 해외주식펀드, ETF 등 다양한 형태의 펀드로 활발하게 투자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테마펀드, ESG 펀드 등으로 자금 유입이 많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투자자들은 관심 있는 분야에만 투자하는 펀드에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ETF 투자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테마펀드가 ETF로 활발하게 출시되고 있다.

연초 이후 자금 유입 상위펀드 중에서는 일반 액티브펀드는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액티브일반 펀드 중에서는 'KB코리아뉴딜펀드'(2,20억원), '타임폴리오마켓리더'(522억원), 'NH-Amundi필승코리아'(434억원), '삼성뉴딜코리아'(348억원)의 자금 유입 규모가 컸다. 액티브일반 유형에서도 뉴딜과 관련된 펀드에 대한 선호가 컸다.

특정 테마나 업종에 투자하는 펀드는 높은 기대수익률과 함께 높은 변동성을 감수해야 한다. 테마펀드처럼 특정 분야에만 투자하는 펀드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20~30% 정도를 투자하는 것을 권장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비중을 20~30%로 엄격하게 따르는 않더라도, 변동성에 대한 경각심은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

연초 이후 자금유입 상위펀드			(단위: 억원,%)		
펀드명	순자산	자금유출입	수익률		
			1주일	1개월	1년
삼성 KODEX 2차전지	13,538	9,198	5.7	-2.8	194.5
미래에셋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	6,985	7,764	4.6	-10.7	
한국투자글로벌전기차&배터리	11,915	6,349	3.5	1.2	124.1
KBKBSTAR 국고채3년선물인버스	6,511	5,990	0.1	0.1	-0.2
미래에셋 TIGERKRX2차전지 K-뉴딜	8,195	5,600	7.6	-1.7	
미래에셋 TIGER200IT	8,604	4,705	4.5	0.7	111.1
삼성 KODEX200선물인버스2X	21,071	4,342	-5.3	-5.5	-76.6
한국투자크레딧포커스 ESG	10,527	4,124	0.0	0.1	3.2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	9,334	3,919	2.0	-12.6	71.8
미래에셋 TIGER2차전지테마	8,231	3,821	5.4	0.3	189.9
삼성 KODEX 삼성그룹주	18,324	3,680	3.0	1.3	84.6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	25,136	3,662	1.6	2.8	77.0
한화단기플러스(채권)	3,315	3,314	0.0		
삼성 KODEX 인버스]	11,943	3,288	-2.7	-2.7	-50.4
미래에셋코어테크	6,364	3,154	2.9	1.8	111.3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월 2일 영업일 기준